# 항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19 호 2013년4월1일발행









한사람 한사람이 여러가지 구상을 품고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부터 2 년의 세월을 헤아렸습니다. 3 월 11 일, 가마이시, 센다이, 신지, 오나하마 각각의 베이스에서는 지금까지 만난 분들의 옆에서 지진에 희생당한 분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바울 교회에서 교구를 넘어 약 80 명이 모여 동일본 대지진 2 주년 기념 성찬식 · 별세 기념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도들이 지진 해일에 의해 희생된 유일한 교회인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가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 사제 하세가와 키요즈미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교회의 향후」

###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교회의 향후

사제 하세가와 키요즈미

센타신지 센터장 - 토호쿠 교구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부흥 프로젝트 위원장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2011年3月11日부터지금까지

2011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신도, 지역 주민 3/11 13 명이 교회에서 밤을 지샜다.



3/14 토호쿠 교구 재해 대책 본부 설립.

3/21 관리목사의 하야시 사제와 신도 2 명이 지원 물자를 차에 싣고 이소야마신도들이 대피 해 있는 대피소 (후쿠다 초등학교)에.



4/24 부활절. 센다이의 신도들이 대피소를 방문하여 이소야마 신도, 피난하고 있던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에서 기 도를 바쳤다. 그안에는 센다이 부인회 로부터 부활절 달걀을 받고 어린 시 절에 선교사로부터 받은 것을 그리워 하는 사람도 있었다.



7/22 미나미소마시의 홀에서 쓰나미에 희 생된 3 명의 신도의 장례식.

7/24 히로하타 가설 주택의 신도 집에서 지진 후 첫 주일 예배. 다다미 방에 11 명이 모였다.



8/28 성공회 신도, 사이토 겐 씨가 소유한 스튜디오에서 주일 예배.(현재도 임시 예배당으로 빌리고 있다.) 이때부터 지진 전처럼 한달에 한번 주일 예배 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2월 16일(토)오후 1시, 춥지만 맑은 하늘 속에서 우리는 성당에 모여, 방한복을 입은 채 회중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별 해제의 기도를 위해서 였습니다. 얼어 붙은 공기에 싸여, 가토히로미치 토호쿠 교구 주교 집전, 하세가와 사제의 보조로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신도와 센다이·야마가타·요네자와 그리고 도쿄에서 온 성도들, 또한 지역 시의원, 대지진 당일 밤피난한 주민 등 23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중 하세가와 사제로부의메시지와 식후에 참석한 교회 신도 미야케 쯔요시 씨의 인사로 수많은장면이 생각났던 것, 성당과의 이별이 힘든 일, 그러나 반드시 재생·재건 시켜 부활을 이룰 것을 서약·신념을 말해, 마침 있던 분들은눈물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가 시작된 18 일 (월)과 19 일 (화) 양일간, 목수의 지도하에, 모인 사람들은 고령의 신체를 아낌없이 사용,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젊은 스텝과 자원 봉사자들과 성당의 회중석과 서적 등 모든 비품을 옮겨, 성당 아래에 있는 복원 된 신도의 농기구 창고로 이동 수납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이미 지난해 분리 운반, 아오바에 보관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제단, 스크린 등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재건될 건물의 일부에 재사용, 재활용, 절감하기 위해 잠시 자는 것입니다. 76 년간의 역사를 끝내고, 이 물건들은 아마 1,2 년 휴양에 들어간 것입니다.





1920 년 여름, 센다이 아오바 학원장 랜슨 여자 집사가 병후 요양을 위해 이소야마에 온 것이, 현지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1936 년 예배당 신축, 12 월 27 일 복음 기자 사도 성 요한 일에 빈스테드 주교에 의해 봉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올해로 77년이 됩니다. 그안에 있었던 역사적에피소드를, 나는 신지 마을에 오게 된 2 년간 특히 몇 사람로부터 여러번 들었습니다. 하나 하나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의 선명한기억의 저편으로 초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아이들, 지역 주민, 신도, 가족, 또한 선교사, 전도사, 신부, 주교들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재산이기도 한 성당은 오랜 세월 동안 해풍의 영향을 받아 매우 나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2011 년 3 월 11 일, 전대 미문의 대지진 · 거대 해일에 휩쓸렀습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해안에 위치한 동산 중턱에 세워진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는 다행히 해일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평소 주지한 바와 같이 성당은 이소야마 지역 주민의 피난처로 사용되어, 13 명이 긴급 대피,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몸을 걸치고 하룻밤을 보낸 곳이며, 그분들의 생명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윽고, 성당 건물은 반파의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성당과 오르간은 뭔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지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아 오는 분들이 점차점차 늘어났습니다. 성공회에서 신도의 쓰나미 희생자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어느덧 일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세계 성공회로부터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순례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 가운데 기도가 쌓였습니다.

예배당은 랜슨 선생과 관련 있는 1 대의 리드 오르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미야케 미노루 씨가 자주 의자에 앉아 악보를 따라, 한마음으로 건반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연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오르간은 이미 너덜너덜해 졌지만 동경 교구 성도님의 믿음과 열정, 가쓰우라 오르간 공장 가쓰우라 미치유키 씨의 기술과 열정과 애정에의해 전면 완전 복구가 이루어져 2012 년 12 월 27 일 예배당 봉헌의날, 그것은 훌륭하게 되살아나 임시 예배당에 반입 되었습니다. 너무좋은 일에서 감동적인 부활이었습니다. 2013 년 1 월 6 일 (공현일),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임시 예배당 (사이토 겐 스튜디오)에서 주님의탄생을 축하 성찬식이 드려져, 해일로 사망한 신도 3 명의 노랫 소리가천정으로부터도 울려 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곳에서 기쁜 미소를짓고 있는 미야케 씨를 엿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르간의 부활 드라마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성당과 작별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입 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럼 어떤 건물로 하면 좋은 것 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기념한 메모리얼, 위령, 진혼의 장소가 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는 이제 부터입니다. 토호쿠 교구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부흥 프로젝트에서 협의를 거듭하면서 주님의 확실하고 풍부한지도 편달을 믿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월중 성당은 해체됩니다. 본문을 읽는 무렵에는 벌써 그 웅장한 모습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해 성당아. 다시 거듭날 날까지.

9/11 나카소 시게루 씨 견진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바울 교회에서).

10/12 리드 오르간을 수리하기 위해 이시노 마키시의 공장에 반송.

 12/4
 보관을 위해 제단, 예배 용구 반출.



12/25 모리 카오리씨 세례식 (센다이 기독교회에서).

2012 1/22 모리 카오리씨 견진(이소야마 성 요한 1/22 교회 임시 예배당에서).

2/16 미국 성공회 쇼리 주교 내방

3/11 동일본 대지진 1 주년 기념 성찬식, 별 세자 기념기도를 피해 신도 집 부지의 특설 텐트에서 바쳤다. 예배당에서 기도 의 시간을 가졌다. 약50 명 참석.





5/16 대한성공회로부터 김근상 주교 내방.

6/9 이재민 지원 센터 신지 개소 예배. 57 명 참석.

10/3 캐나다 성공회 힐즈 대주교, 휘리 대 집사 내방.

2013 오르간 수리 완료. 임시 예배당에.



2/16 예배당 성별 해제기도 (사진 : 왼쪽 페이지 본문 중)

2/18 예배당의 짐을 옮기기. 회중석 소파 등을 하나 하나 나를때마다 추억 이야기를 하며 모든 비품이 실려졌다.



3/10 동일본 대지진 2 주년 전 주일 예배. 유족 관계자 17 명 참석.

3/12 성별 해제 된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해체. 신도, 프로젝트 직원 5명 입회.



프로젝트가 어디를 누구와 걷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프로그램의 후속 등 현재 활동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 ■신지 (후쿠시마) / 별세자 기념 기도

3 월 10 일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임시 예배 당에는, 해일로 희생된 3 명의 신도의 유골을 안 치하고 별세자 기념기도를 바쳤다. 그밖에, 오도 하마에서 가족을 잃은 가족도 임시 예배당을 처음 찾아 함께 기도했다. 이날은 돌아가신 나카 소 쥰코 씨가 근무했던 유치원 원장님이 주악을 담당 "이 오르간을 연주하면 (돌아가신) 나카소 씨와 미야케 씨가 연주 했던 일을 생각해, 눈물 이 복 받쳐 온다"라고 말씀 하셨다.

#### ■이와키시 (후쿠시마) / 손수 만든 합동 위령제

3월 11일, "토미오카 이즈미타마쯔유 가설"집회소에는, 지난해에 이어 자치회 주최로 불교식의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이 가설 주택에는 방사선 피해에 의해, 전체 도시가 대피를 한 토미오카 마을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도시 전역이 경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골도 무덤에 들어 갈수 없다. 위령제는 회장 설치등 모든 주민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고, 마찬가지로 피난중인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지진, 해일에 의해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피난 생활 중에 돌아가신분들을 기억했다. 성공회에서 오사카 교구 기무라사제가 참례식 전에 "넌더리 카페"가 열려 참석한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센다이 (미야기) /또 다른 기념 예배

3 월 11 일 함께 걷자! 프로젝트 센다이 사무실에서 외국인 피해자와 함께 예배를 했다. 홋카이도 교구 사이토 사제의 집전으로, 지진에 의해 별세한참석자의 가족이나 친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영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 예배는외국인 피해자 분들이 "자신이 소중히 해 온 종교의 방식으로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받아 이루어졌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가톨릭여성으로, 불교의 가정에 시집와, 죽은 가족이나친구의 장례식, 기념식은 불교식으로 드려왔다. 어

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신에 스며든 기독교의 기도를 바친 것으로, 겨우 마음 이 진정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 ■가마이시 (이와테) / 당연한 듯이, 껴안다

가마이시 피해자 지원센터는 3 월 11 일, 가까운 곳에서 껴안는 것을 목표로,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았다. 스탭은 가마이시 유아 학원 어린이 예배에서함께 기도, 가미나카시마 가설 자치회 주최의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밤에는 노다 중앙 가설 위령제에초청 참가했다. 당연한 존재로 피해자와 함께 그자리에 서서 기도를 소중히 드렸다.

#### 활동기록 (2/6~3/5)

#### 가설지원

- ●사롱 / 오하타가설 (가마이시)
- ●요리모임 / (가마이시)
- ●떡치기 / (가마이시)
- ●방석배포 / (가마이시)
- ●꽃꽂이를 즐기는 모임/ (가마이시)
- ▲장보기 버스 투어/나토리시
- ◆핫코나 (오차회) / 신지
- ◆핫시네마 (영화회) / 신지
- ◆홋코리카페 / 이와키시

그 외에도 ... 눈치우기, 지압 마사지, 어린이 프로 그램 등

#### 외국인 지원

- ▲홈 헬퍼 2 급 자격증 취득 강좌/이시노마키
- ▲개별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간행물의 해설, 직업 소개소 등 동행, 기타) / 이시노마키시, 다카죠, 센다이
- ▲일본어 교실, 영어 강사 계발 세션 / 센다이

#### 장애자 지원

- ▲이벤트 도우미 등 / 센다이
- ▲작업 보조 / 게센누마

#### 기타

- ◆유치원 도움 / 후쿠시마 현 여러 유치원
- ★피해 지역 순례, 방문 / 미야기 현, 신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기타 여러현에 있어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반 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http://www.nskk.org/walk/



함께걷자!프로젝트 소식지 제 19호 2013년 4월 1일 발행

「함께걷자!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022-265-5221 FAX: 022-748-5321 E-mail: walk@nskk.org web: http://www.nskk.org/walk/ 헌금을 보내 주시실 경우는 이쪽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우체국 00120-0-78536 (예금주 일본 성공회)